특별기고

최근 경제동향과 '95년 경제운영 방향

임 상 규
(경제기획원 경제조사과장)

1. '93~'94년 경제동향

'93년 신정부 출범당시 우리 경제는 높은 인플레의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경제활력이 크게 약화되어 '92년 하반기부터 '93년 상반기 중에는 '80년대 이후 최저수준인 3~4%대의 경제성장에 그쳤으며, 선진국의 보호주의 강화와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급속한 추격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경쟁력은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새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신경제 100일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한편,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유도하고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등 경제운영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관련 각종 제도의 개혁에 착수하여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고 금리자유화도 단행하였다. 재정개혁과 대대적인 규제완화 그리고 공기업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93년초의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의 안정기조를 견지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 여건을 보다 근원적으로 확충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93년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94년의 건실한 경제활황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94년에는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설비투자가 활기를 보인 것외에 소비도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전년의 5.6% 보다 높은 8% 내외에 이를 전망이다.

물가는 '94년 여름의 가뭄·폭염 등 기상이변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으나 거시경제의 안정운영과 국민각계의 협조에 힘입어 최근들어 안정을 되찾고 있어 금년말 소비자물가가 작년의 5.8% 수준 이하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수지에 있어서는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의 호황, 특히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해외여행 확대 등으로 무역외수지 적자폭도 커져서 경상수지가 전년의 4억 $ 흑자에서 45억 $ 내외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의 무역규모 등을 감안할 때 염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표 1〉 주요 경제지표 추이

	'90	'91	'92	'93	'94 1/4~3/4
경제성장(%)	9.6	9.1	5.0	5.6	8.0
산업생산(%)	8.9	9.5	5.9	4.4	8.9
설비투자(%)	18.8	12.1	△1.1	0.2	19.6
소비자물가(연말대비, %)	9.4	9.3	4.5	5.8	5.5[1]
경상수지(억, $)	△22	△87	△45	4	△45[2]

1) 1~11월 기준, 2) 1~10월 기준

〈표 2〉 세계 경제전망

	'92	'93	'94(E)	'95(E)
세계 성장률(%)	1.8	2.3	3.1	3.6
· 선진국	1.6	1.2	2.7	2.7
· 개도국	5.9	6.1	5.6	5.6
세계 교역신장률(%)	4.7	4.0	7.2	5.9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94. 10)

2. '95년 국내외 경제여건

1) 해외경제 여건

세계경제는 활황세가 이어져 '94년에 2~3%대의 성장을 보인 후 '95년 이후에도 3~4%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일본·독일 등 선진국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개도국 등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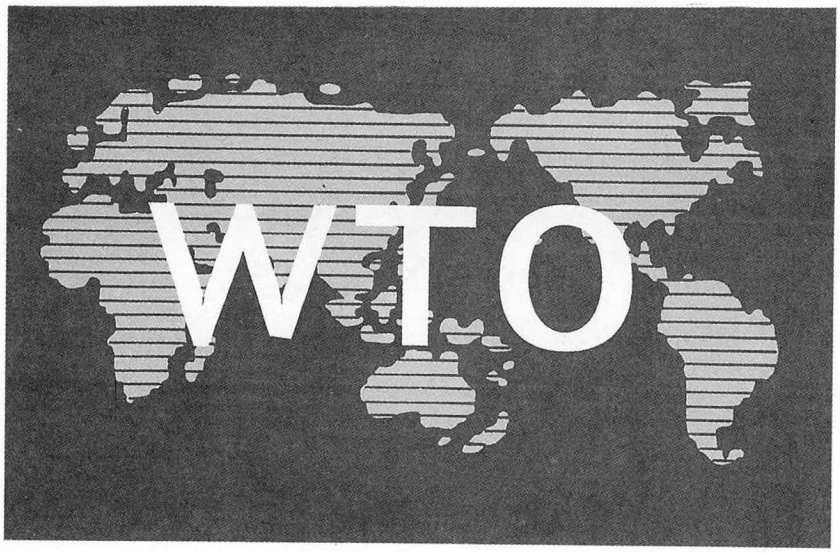
또한 '95. 1. 1부터 WTO체제의 출범이 결정되어 경제 활동의 범세계화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불가능한 경제국경 없는 치열한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 것이다. 세계교역은 이러한 요인들에 힘입어 '93년의 4%에서 '94년 이후 6~7%대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화의 대미 달러환율은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되고 미·일 포괄경제협의 타결과 함께 엔화강세 압력이 완화되면서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며, 국제금리도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2) 국내경제 여건

'95년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와 수출의 신장세가 다소 둔화되겠으나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건설투자도 회복세를 보여 7%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호조 지속과 특별소비세율 인하,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 및 세금우대저축 축소 등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자극될 가능성이 있으며, SOC투자에 대한 민간참여에 따른 용지매입본격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 등으로 부동



산 가격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기상승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임금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자본자유화 확대로 외국 자본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 통화증발 및 환율절상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3. '95년 경제운영방향

'95년 경제운영에 있어서 중점과제는 먼저 경제 안정기조의 유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성장 활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인플레 없는 선진국형 안정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통화와 재정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통혁신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 구조적 물가안정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WTO체제 출범으로 상징되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찾기 위해 경제의 세계화 작업을 촉진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의 제도·관행과 의식을 국제수준에 맞춰 변화시켜 나가는 한편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SOC확충, 정보화 촉진 등 경쟁력 강화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을 계기로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온 국민생활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여건의 질적 향상에도 역점을 두어나가는 동시에 정책에 대한 발상도 종래의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통·환경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불편해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4대 지자제선거 실시를 계기로 본격화되는 지방화시대에 철저히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상호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